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이효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부교수

A Study on Deformation Depicted on Western Costumes of the Late 20th Century

Hyo-Jin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vision of HomeEconomics, Major of Clothing and Textiles,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types of Deformation depicted on the late 1990s western costumes.

The late 20th century cultural experience or lifestyle is interpreted with 'popular culture', popular culture is described as cultural phenomenon in postmodern condition.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may no longer be strictly 'working-class' as the idealistic purists of political formalism would like to, but does emerge from subordinate cultures, from the inventive edges of the consensus, and from the previously ignored and suppressed. It gestured through a widening democratization of styles, sounds and images, to an important remarking, to new possibilities, new perspectives, new projects.

The growing importance of popular culture as a source for change of expression in the art, especially new desire and will of artists has been caused lots of 'Deformation' in their works. Deformation doesn't mean to represent object faithfully as it were seen through the artist's eyes. In a sense it implies that artists deform it with conscious or unconscious form.

So in this study, the phenomenon of the postmodern western costumes is to describe 'formative language' called 'Deformation', and it is classified three types, that is,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Deformation of silhouette', 'Deformation of detail'.

First,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is represented by deconstructive, subversive image in western costumes, a lot of costumes types of deconstruction have been shown by fashion designers are emphasized empathy with Deformation of human-body image.

* 199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에 의해 수행됨.

Second, Deformation of silhouette is also represented subversion of traditional manner and utility, underwear and outwear structure and ugly image, parody image of postmodernism, and so on.

Above all, the late 1990s western costumes with Deformation of silhouette was an infinitely larger and more complex world than it appeared from outside and has expressed as a rejection against the values which traditional aesthetic concept had pursued. And parody through the change of internal meaning is to bring about paradox, irony, contempt, satire, unexpectedness by applying the original to inappropriate subject through its substitution, inversion.

Third, Deformation of detail is represented overdecoration, exaggerative distortion of form, overlapping and fetish image, parody image, kitsch image, and so on. Once fetish fashions achieve a certain 'style factor' among trendsetter, they are picked up by internationally famous fashion designers. The characteristics of kitsch are overdecoration, unfitness, imitation, used western costumes.

Key Words : Deformation, popular culture, distortion, deconstruction

I . 머릿글

산업사회의 기술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속에서 1960, 70년대는 대중문화라는 개념의 등장¹⁾과 함께 젊은이들의 거리 패션의 고급문화²⁾에 확산되었으며 세기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산업 사회 구조에서 충족될 수 없었던 변화를 수반한 후 기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복식에 있어서도 다원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최첨단 전자통신 설비와 컴퓨터 등의 초고속 정보문화를 특징으로 대두된 후기산업사회³⁾ 영향은 엄청난 물질적 혜택과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익명의 대중 속에 자아상실이라는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 뿌리를 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세기말적 현상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더욱더 다원화의 특징을 뚜렷하게 표출해 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조형작품 이미지를 통하여 억눌리고 왜곡되게 표현됨으로써 인간 자신의 표현 충동을 만족시키고 인간이 지닌 복잡하고 복합적인 내적 갈등을 나타내게 되었다.

합리성과 기능성을 존중하는 20세기 전반의 모더니즘의 가치체계에 반발하여 탈획일화, 탈규격화, 탈장르화 등으로 20세기 후반의 문화적 움직임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인간 내면의 문제를 조형 예술을 통하여 상실된 인간성 회복과 위기적 사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간접적인 모색의 하나로 그 표현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양복식에 있어서도 '정제되고 기능화된 복식에 반대하여 기존의 질서와 가치체계가 전복되고 해체되는 불확정적인 복식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⁴⁾고 언급한 데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1990년대는 하위문화의 부각으로 다원화 경향이 복식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다.

특히 예술가들은 인간을 주체로 행해지는 모든 현상속에서 존재하는 가시적 심리와 내재된 심리를 상징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조형화 하였으며 분해와 왜곡, 변형 등은 세기말의 정신 형태로써 조형 세계에 군림하게 되었다.

조형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상의 재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즉 작가 자신이 대상에서 얻은 인상으로부터 조형적인 형식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욕구와 의지는 Deformation을 수반하였고 세기말의 분위기에서는 극히 추상적인 이미지로 까지 표현되고 있다.

근대 이후 예술가들은 인간의 내면 감정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Deformation의 수단을 작품에서 표출하고자 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감각의 미적 승화에 대한 의지는 표현방법이나 기법에서 더욱더 독창적인 Deformation을 가져왔다. 특히

세기말에는 시대적인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 등으로 Deformation은 서양 복식에서도 인간적 삶의 내면에 있는 여러 상황들인, 고독, 고달픔, 욕망, 소외, 절규 등에 이르는 온갖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김민자⁵⁾는 '작가의 작품의 맥락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위치에 따라 그때 그때 생산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듯이 세기말의 서양 복식에 나타난 현상을 불확실한 감정의 표현들의 모습으로 필자는 고찰해 보았으며 이를 Deformation이라는 조형언어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Deformation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조형성을 음미하고 인식함으로써 미래패션에서는 어떠한 조형언어로 서양 복식의 이미지가 창조될 수 있는지 보다 새롭고 깊이있는 표현 형식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복잡다양한 양상을 나타내었던 세기말 서양복식에 대한 조형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논문 그리고 간행물 등을 참조하였으며 사진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외 패션관련 간행물 및 잡지 그리고 신문 등의 자료와 internet site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내용의 시대적 범위는 세기말적 현상으로 Deformation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고찰

1. Deformation의 개념

일반적으로 예술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위해 항상 Deformation이 있어 왔는데 현대 미술에 있어서의 Deformation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며,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예상을 뒤엎기 위해 예술가는 대상을 변형하게 된다. 즉 익숙한 대상이 그것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이탈되어 변형되거나 분열 혹은 분절된다. 이와 같은 예술을 예전했던 보들레르(C.

P. Baudelaire)는 예술가는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해체(Decomposing)시키는 존재라고 말한바 있다.⁶⁾

Deformation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리학 측면에서는 변형이나 휘어지기를 뜻하며 문학이나 미술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이라 하여 보통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변형 표현해서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Deformation은 미술용어로써 살펴보면 대상의 표현에 있어서 작가의 주관에 의하여 형태를 변형시켜 대상을 강조한 결과로써 작가의 감정상태를 중시하여 대상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Deformation은 변형, 왜곡이라는 뜻으로 대상을 시각적 영상으로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대상을 고의로 왜곡시켜 그리는 법, 세잔느(Paul Cezanne:1839-1906) 이후 특히 표현주의(Expressionism)⁸⁾와 야수주의(Fauvism)⁹⁾가 의식적으로 사용한 예술적 강조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감정 표현을 위해 혹은 조형적인 의도를 강조하거나 양식화, 풍자적인 과장 등을 위해 사물의 자연 형태에 보다 주관적인 왜곡을 더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의 충실한 재현을 거부하고 형체나 비례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기법적 특징이다. 여기에는 어떤 부자연스러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그 만큼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통한 창조성으로의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도 있다.¹⁰⁾

또 다른 미술사전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조형 예술에서 자연의 대상을 변형하여 표시하는 것, 원근법, 프로포션, 미술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표현을 정확히 재현하는 사실보다는 예술가의 조형의지가 중시된다. 특히 근대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을 강조하고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형이나 프로포션, 공간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여 독자적인 조형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여기에서 왜곡이라면 보통 잡아당김, 꼬임, 확대 또는 보통의 형태와 크기를 달리 바꾼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왜곡은 또한 명암의 대비, 확대나 본래의 질감을 과장하는 것 등 색과 조명의 과장도 포함된다.

Deformation은 기본적으로 '객체성'과 '정체성'의

부정 혹은 그로부터 일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근대의 사실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한 이후 모든 예술 유파들을 통해 나타난다. 세기초 표현주의, 미래주의(Futurism)¹²⁾, 입체주의(Cubism)¹³⁾ 등의 경우에는 보통 'Deformation'이라고 해왔는데 그것은 형태적 일탈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참조물의 형태가 상당히 보존되고 있고 또 보존되어야만 하는 사실주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더욱 급진적인 변형(Transformation, Mutation의 단계로 나아가는)들은 참조물의 보존 보다는 완전한 변질과 일탈을 드러낸다는 점이 다르다.¹⁴⁾

그러나 Deformation과 Transformation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혼동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것은 Deformation에 관한 고찰이며 두 단어의 개념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Transformation이란 일단 고착된 실체주의적 사고에 반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그와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개념들이 다양하다. 그것은 '변화', '변질', '돌연변이', '왜형', '기형화' 등이며 영어로는 'Transformation', 'Transmutation', 'Mutation', 'Deformation', 'Distortion', 'Metamorphosis', 'Anamorphosis' 등을 나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술용어인 'Morphing'¹⁵⁾을 이에 더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Transformation에 관련된 상당수의 용어들이 '생물학적', '진화론적' 분야의 용어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utationism(돌연변이)', 'Transformism(변형적 진화설)' 등이 그 예이며 'Anamorphosis'는 기형을 의미한다.¹⁶⁾

Transformation은 미술 용어사전에 의하면 '조형의 경우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물체의 형태나 색을 있는 그대로 베끼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미의식을 통하여 해체하고 원형과는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원형으로부터 절연(絶縁)되는 것은 아니다.'를 의미한다.¹⁷⁾

일상생활 용어로써 Deformation의 개념은 아름다운 형태의 결합을 변형시킨 결과로 추한 형태나 추하게 변형된 것으로 더 나쁜 형태로 개조시킨 것을 의미하며 형태나 모양을 수정하거나 형태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형태에 있어서 압축, 흠풀기 등에 의한 구조의 변화를 Deformation이라고 하고 있으며 비틀림 혹은 비틀리는 상태, 구부러져 꼬인 형태가 흐트러짐이나 찌그러짐, 구부러져 비틀거리거나 일그러진 물질적인 변화로 연속성의 파괴를 연관시키지 않는 모양의 모든 변화를 왜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

이처럼 Deformation은 대상을 시각적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의도적, 무의식적, 주관적, 조형적 시각에 따라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나 주관적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Deformation의 예술적 선택은 계산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주제에 대한 예술가의 정적인 태도의 자발적이고 주로 무의식적인 결과를 가져온다.¹⁹⁾

예술의 본질이 감정의 표현에 있다고 할 때 그 날말의 의미가 항상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지는 않으며 예술가가 형태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규율이나 절제 자체가 바로 표현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술에 있어서 Deformation은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의지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된 세기말 서양복식에서도 그 범주를 찾을 수 있다. 서양 복식에 있어서 세기말적 현상을 키치(kitsch)나 패리디(parady), 페티시(petish) 등 여러가지의 이미지로써 패션 디자이너들의 내적 감정이 표출된 작품들은 같은 이러한 Deformation의 관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술에 있어서 Deformation의 전개

20세기에 들어와 합리화의 가장 빛나는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공업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연의 정복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 노예화의 감옥으로 치닫게 된 부정적 현상을 수반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 위기에서의 당면한 문제점들이 현대 예술의 태동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위기의식의 인식은 그 때까지

긍정적 측면만으로 꽂피워진 예술의 각 분야--예를 들면 음악에서는 조성음악, 미술에서는 재현적 회화--의 諸예술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을 초래하게 되었다.²⁰⁾

즉 이제까지의 기존 예술의 전통 및 언어가 완전히 부적합하게 됨으로써 기성의 패러다임 속에서의 표현언어는 진실한 표현 매체로써는 무기력한 것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환영주의적 재현이 아닌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술가가 안게 된 명제 중의 하나가 되었고 예술에 있어서 예술가의 조형의지는 현실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정신적인 무엇인가로 상징하려는 의욕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감정의 양식은 왜곡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관찰자의 느낌이 '전형적'인 것이나 시각적 '정확성'에서 다소 떨어져야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보고 느끼는 개인적인 방법과 개성적인 감각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형태를 변형시킨다. 그 이유는 감정양식에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형태왜곡의 자유로운 도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왜곡은 즉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감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형태의 왜곡을 통해 예술가는 감상자에게 습관적 감상법과 다른 인식 방법을 갖도록 충격을 주며 냉철한 이성보다는 오히려 감성이 예술작품과 관람객의 연결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것이다.²¹⁾

원시미술에서는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의미에서 변형되었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써 그리스 및 중세미술에서는 神적인 대상으로써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체의 해부학적인 비례를 토대로 인체의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였다. 근대에 와서는 내면의 감정표현을 위해 실재의 인체표현보다는 작가의 생각이나 관념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체가 변형되어졌다.

근대 이후 각종 전달매체가 발달되면서 문화의 보급이 가속화되었고 군중이 형성됨으로써 개인보다 전체를 겨냥한 더 큰 이윤 추구의 수단을 모색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대중'이라고 불리우는 익명의 인간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군중속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현대인이 급증하

게 되는 것이다.

양차 대전후 그 역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위기는 불안과 의혹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과 함께 소외, 위기감을 가중시켰으며 '실존주의'라는 인간적인 것의 극치의 표현을 빌려야 할 만큼 위기의식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예술에서는 억눌리고 왜곡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자신의 표현충동을 만족시키고 상실된 인간성 회복에 한 발자국씩 다가서려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특히 근대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을 강조하고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형이나 비례, 공간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여 독자적인 조형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되어 왔으며 입체주의, 초현실주의(Surrealism)²²⁾, 표현주의 등의 조형적 특색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이 중 입체주의의 작품들은 새로운 회화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의미의 재현에 바탕을 둔 그림은 진보적인 자연주의적 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불연속적인 선과 얼룩 그리고 복잡성을 지닌 자율적 구성의 미술속에 합물되었다.²⁴⁾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는 낡은 담뱃대와 판자와 어린이들의 장난감 옆에 놓여있는 그의 장난감 원숭이를 가지고 유명한 형상들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혼란을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엿는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프로테우스(Proteus)²⁵⁾와도 같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는 변형의 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변형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지중해의 우아함에서부터 보기 흥한 변형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는 피카소의 표현양식 때문이다. 이러한 변형은 유기적 성격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학'이나 '미' 조차도 공격하고 있다.²⁶⁾ 또한 그는 변형의 역량을 실현시키기 위해 파괴와 해체의 쟁계가 자신의 예술이라고 하였다.²⁷⁾

이러한 피카소의 견해는 오늘날의 산업 및 과학기술에 바탕이 둔 미술은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의 미술은 '예술적' 활동과 '과학적' 활동 사이에 구분을 지었고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미술에는 집단 대중에 대한 관계에 있어 격렬한 충동의 소지를 스스로 안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에게 영합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현대에 이르러 조각가의 인체표현을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함축시키거나 과장되게 강조 내지는 변형시켜 사실적 모습이 아닌 반추상 또는 추상적 표현으로 변화하여 간다. 인체가 비재현적 경향을 가지는 것은 세계대전을 통한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와 인간성 상실과 물질만능주의라는 사회 개념의 대두 등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인간의 외형적인 구조, 형식적인 구조보다는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 대한 사고와 미술사조 보다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작가의 독특한 세계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표현만이 아니라 때로는 미적 관조를 방해하는 반미적인 것, 즉 추(醜)한 것을 표현할 경우가 있다. 근대에는 질서, 비례, 균제, 조화를 표현하는 고전주의에 맞서 반역, 모순, 감정, 불균형을 기도하는 낭만주의가 예술의 물결을 이루었다. 특히 현대에 와서 꿈이나 무의식 등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와 불안, 부조리, 암흑 등을 표현하는 실존주의는 미 보다는 추한 것을 표현하였다. 아름다움의 부정인 추함이 어떤 것에 생기를 주는 생명력, 표현력의 서술일 때가 있는데 이 때 추함은 아름다움의 배경 또는 둘레가 될 뿐만 아니라 직접 미적 표현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추의 이미지는 사회를 통제해 온 지배적인 힘에 눌려 그간 소외되었던 사회의 제반 요소들, 즉 억압되었던 것, 비동일적인 것과의 결속을 강조한다. 특히 현대 예술에서 과거의 미적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부정되었던 요인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²⁸⁾

추는 불안전한 미가 아니라 미의 부정이며 따라서 추와 미는 동격의 대립 개념이다. 추의 형식적 원리는 무형식성, 부정확성, 부조화, 불균형, 기형인데 이러한 추를 통한 미의 탐구가 광의적으로 해석 된다는 것이다.²⁹⁾

안선경, 양숙희³⁰⁾는 불균형은 균형이 형식의 질적인 개별성을 부정하고 질적인 동일 척도를 훼손

하므로 추한 것이 되고 이는 조형예술에서 잘 나타난다고 서술하였다. 즉 복식에서 불균형은 복식의 외적 표현에 있어 기능성을 무시한 추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다. 주로 복식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와 원리에 위배된 현상인 디자인 원리의 문제, 위치전환, 구성의 의도적 미숙성, 소재상의 문제로 복식의 불균형을 분류하였다. 부조화는 추한 것이라도 불가피한 동일한 구별이 있을 때 미가 되고 우연적 부조화에는 추한 것이 된다는 이론을 전제로 하므로 복식에서는 전체적인 실루엣의 문제에 있어 기준의 개념을 벗어난 추의 특성을 착의의 모순, 신체과장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미적 가치의 세계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³¹⁾ 서양복식에서도 나타나는 비정숙성과 같은 퇴폐미도 기준의 전통미와는 상반되는 추의 개념의 아름다움인 것으로서 기준의 질서로부터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이 모든 요소들을 Deformation의 범주 속에서 함축시킬 수 있다.

예술작품은 순수성을 지향해야 하며 작품의 생명이란 반드시 작가의 정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각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상징적, 역동적, 기하학적인 Deformation으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작품의 특성이 표현되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대상의 주관적 표현에 있는 것이므로 작가에 의한 Deformation은 필수적이며 독창적인 표현력에 의하여 작품은 생명력을 획득된다고 볼 수 있다.

III. 1990년대 후반의 서양복식과 Deformation의 유형

세기말 서양 복식에 표현되는 독창적이고 개성이 두드러지는 수 많은諸모습들에서 Deformation의 조형적 특징을 유형화 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 실루엣(Silhouette)의 Deformation, 디테일(Detail)의 Deformation으로 분류하여 그 조형 예술에서의 맥락을 고찰하였다.

1.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

예술에서 인체묘사는 곧 자연의 재현으로 시대적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의 정도에 따라 보편적 인체 왜곡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원시시대의 영험을 지닌 神像으로 표현된 인체조각은 현대에 이르러 반자연적 물질의 첨단문명으로 인해 훼손되어 썩어가는 자연에 대한 무관심적 소외의식으로써 인체로 표현되어지는 예술품 자체가 그 형상의 '개체화', '기계 부속품화'로 전락함과 동시에 겹칠만 남은 인간형상의 외형과 다양한 매체에 종속되어버린 인간성 상실의 내용 등으로 이루어지는 그 왜곡적 표현들은 현대 인간의 자멸해가는 정신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³⁾

인체 이미지의 조형화에 있어서 변형되어진 인체는 예술적인 감각과 함께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될 수 있으며, Deformation을 인간에 적용해 본다면 변형은 비인간화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의 하나는 바로 초상화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³⁴⁾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존경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사 초상화를 그린다고 해도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란 단지 예술가가 자신이 본 바대로 대상을 적합하게 조작하기 위한 기회에 불과한 것이다.

즉 현대의 인간은 세계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벼름으로써 결국 그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불투명하고 구토를 일으키는 것들이 되어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얼굴에 지겨워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싫증을 느끼게 된 인간은 그래서 파괴적인 놀이를 고안해 내게 되었다. 결국 비인간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미술의 최고의 화두는 '인체'로 보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한 심미적 기능으로써 인체를 재현해 온 작가들은 '변형'이라는 개념앞에 맞닥뜨린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인체변형의 한 지류로 보이는 실험적인 작품들이 1999년 3월에서 4월사이에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페트리샤 코렐리아 갤러리에서 '인체의 유출'이라는 주제로 전시되었는데 이것은 문명사회를 고발하려는 무언의 전령자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³⁵⁾

마찬가지로 이은영³⁶⁾은 패션도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적 신체뿐만 아니라 물리적 신체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의복을 통해 신체를 드러내며 신체의식은 기술과 문화적 충격 즉 이국적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계문명에 의해 파괴와 해체라는 시대에 살고있는 인간 존재의 겸은 이면과 허상 그리고 결국에는 무상함의 발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함축적인 의미가 패션을 통해 인체 이미지의 변형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식은 의상이라는 아이템 하나로써 존재 가치를 발휘될 수 없으며 인체이미지의 변형을 추구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내적 감정을 유출하는 효과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뛰어넘은 앤디 워홀(Andy Warhol : 1928-1987) 아래의 미술적 성과와 인간의 정체성을 담은 옷과 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써 현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드러내는 시각적 응축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한다.³⁷⁾

즉 복식미는 복식이 인체에 작용되어 발현되는 소재미, 형태미가 포함된 구성적 표현이며 여기에 인체 및 인간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인간성의 기반이 되어 비로소 표현될 수 있는 미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복식은 인간의 미에 대한 의식의 결과이며 미란 결국 인간의 표현이므로 복식미는 인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다.³⁸⁾

따라서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은 모든 조형예술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념의 파기와 자유로운 사고에 의해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작품을 통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서 표현된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을 고찰해 보면 Alezander McQueen의 작품 (그림 I-1)은 상처를 낸 파괴적인 모습의 모델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상처만이 아니라 한쪽 눈 역시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체를 볼 수 있는데 McQueen은 자신의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세기말의 혼란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으로 창조해 낸 패션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 -1) Alexander McQueen, The Fashion Book, 1998

Julien Macdonald의 작품(그림 I -2)는 메탈릭 니트로 된 '인어공주' 드레스이다.³⁹⁾ 거미줄 같은 실로 짠 꼭기는 드레스와 그 위의 형틀어진 망으로 킴메르인(Cimmerian)⁴⁰⁾의 혼에 사로잡힌 인어공주의 모습을 표현해내고 있는 작품으로 거미줄 같은 소재가 피부위에서 서체(書體)처럼 장식된 인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혹적이고 탐스러운 니트웨어 작품을 시도하는 Macdonald는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을 통하여 니트의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출해 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태상의 왜곡보다는 극도의 과학화와 기계화 되어가는 현시대 상황속에서 Deformation의 범주로 자연으로의 인간 가치를 재조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 -2) Macdonald Julien, The Fashion Book, 1998

John Rocha의 작품(그림 I -3)은 오간자(organza) 드레스로 연보라색으로 프린트된 의상과 추상적인 코발트색 메이크업을 한 모델에 의해 더욱 돋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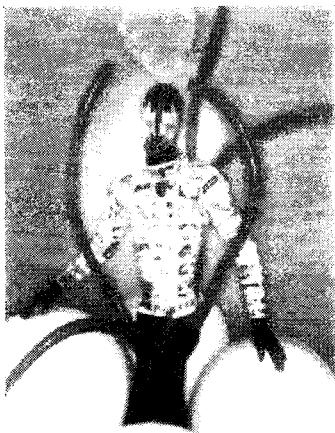
(그림 I -3) John Rocha, The Fashion Book, 1998

하위문화에서 형성되는 거리패션의 독특한 의상과 파괴적인 타투(tattoo)나 메이크업은 이제는 이질감을 주지 않은 정도로 보편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의상 이미지의 극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타투 효과를 창출하는 메이크업이 나타나고 있다. 장미숙, 양숙희⁴¹⁾는 타투를 성적도착으로써의 페티시즘(fetishism)으로 간주하였는데, John Rocha의 작품에서도 강렬하고 이국적인 메이크업이 타투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작품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며 동시에 세기말적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페티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통해 모델의 메이크업은 페티시적 상징으로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 범주에 속한다.

Walter Van Beirendonck의 작품(그림 I -4)의 현란하고 미래적인 의상은 컴퓨터 게임에서 직접적으로 유도되었다. 그의 라벨은 W & LT로써 그것은 'Wild and Lethal Trash'를 의미하는데 그림 I -4의 패션 작품은 현란한 색상조합과 대담한 그래픽의 하이테크 소재들이 유모러스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의 작품에는 의상들이 고안된 클럽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그는 Jean Paul Gaultier의 반항적이고 반패션의 미 그리고 기

이함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젊은이들은 그들을 차별화시키도록 규정하며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입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따라서 그의 이러한 패션 철학은 자신의 작품 이미지에 기발하고 충격적인 인체의 왜곡 모습이 반미학의 개념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림 I -4) Van Beirendonck Walter, The Fashion Book, 1998

90년대 들어 사이버 문화의 대두와 함께 테크노 스타일(technostyle)⁴³⁾이나 사이버펑크(cyberpunk)⁴⁴⁾라는 하위문화의 스타일들이 패션에 그 성격을 드러내면서 첨단기술과 미래적 이미지로써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을 강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Dirk Van Saene의 작품(그림 I -5)의 경우에서는 '인간은 플라스틱(합성수지)이다'⁴⁵⁾라는 신조어가



(그림 I -5) Dirk Van Saene '97 Collezioni

작품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 같다. 인간은 플라스틱처럼 생기가 없고 기계같으며 불품없고, 조작하기 쉽고, 값싸며 하나같이 뻔하다는 의미이다. 머리에 썩워진 철망 위의 벌레 모습 등은 너무 왜곡되고 과파적이며 무생물과 같은 Dirk Van Saene의 작품의 인체 이미지에서 표출해내고 있는 정신세계의 묘사와 유희하게 수용되는 느낌이다. 과학기술이 우상시되고 기술관료주의로 인해 소비상품이 규격화되듯이 우리의 가정도 규격화되고 인간도 첨단 기술주의의 콘베이어 벨트에서 굴러떨어지는 규격화된 존재가 되어왔다. 이러한 세기말적 분위기가 그럼 I -5의 작품에서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으로 표현되었다.

Thierry Mugler의 작품(그림 I -6)은 작품 자체의 구성으로 인체 이미지의 충격적인 왜곡을 통한 비인간화된 형상으로 표현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기술문명 속의 인간의 도구화라는 시대상황은 인간 심리의 정신적 측면을 왜곡해서 보는 심리적 요소 이외에 신체적 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작품이다. 세기말의 정신적 왕폐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조형예술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시각화되고 있는데 Thierry Mugler의 작품에서 인체 이미지의 왜곡적 표현들은 인간의 자멸해 가는 정신성을 반영한 Deform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괴리감을 같은 소재들로 인간의 소외를 인간의 과편화 즉 기형화된 인간 모습이나 기계인간으로 표현함으로써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을 시도한



(그림 I -6) Thierry Mugler Haute Couture Collezioni '97AW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으로 인체 모습의 파괴와 잔인한 묘사, 섬뜩한 암시 등은 괴폐해져가는 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왜곡의 기괴함은 예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순서로써 각각 구별적 단계를 가진다고 한다. 미적인 것에 대하여 추한 것인 적극적인 전제를 가지는 것과 같이 탁월한 대신에 비속적인 것, 온화한 것 대신에 혐오가, 이상적인 것 대신에 희화(戲話)가 나타난다고 한다.⁴⁶⁾

패션 디자이너들 역시 작품의 내면성을 통해 인체의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모습을 야기시킴으로써 인간본능을 이질적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다.

2. 실루엣의 Deformation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복식의 전통적 개념이 변질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제시되어 왔다. 박현신⁴⁷⁾은 이러한 세기말적 현상에 대해 의상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들은 의상의 정확하고 기술적인 재단기법에 의한 구조와 조화 등의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거부하며 또한 기능성, 보온성, 정체성의 상징, TPO개념이나 성의 문제 등의 관습적인 편견들을 해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의상언어'를 찾고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민자⁴⁸⁾는 패션은 자본주의, 정체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불확정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현대적 아이러니를 이루고 있으며 포스트모던 상황의 패션에서는 중심화, 총체적, 국제적 보편성, 획일성으로의 열망은 종말화되었고 다원성에로의 이행이 우세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적 서양복식의 질서가 해체된 반패션의 작품에서 실루엣의 Deformation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작품(그림 II-1)의 경우 전통적인 착장방법을 파괴함으로써 표현된 실루엣의 Deformation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해체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해체(deconstruction)란 탈구축(脫構築), 탈구조(脫構造)라고도 하여 프랑스의 후기구조주

의의 입장을 표명하는 용어로 회화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들이 복잡하게 대립되는 상태이거나 완결된 형태가 아닌 끝없이 진행된다는 의미의 불확정성의 상태, 혹은 해독불가능성의 의미로 나타난다. 양식상으로는 불화와 단절을 초래하는 요소들의 병렬, 축결, 차용 등으로 변별된다.⁴⁹⁾



(그림 II-1) Alexander McQueen, Donna Collezioni '99 S/S

이광래⁵⁰⁾는 '해체주의 사고방식을 가정 먼저 제시한 사람은 자크 데리다(Jaque Derrida)로서 그에 의하면 해체주의 운동은 구조를 외부로 부터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해체주의의 시도는 반드시 내부로 부터 작용한다. 그것은 역전을 위한 전술과 힘을 왜곡된 구조로 부터 빌릴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즉 그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로 빌려온다'라고 서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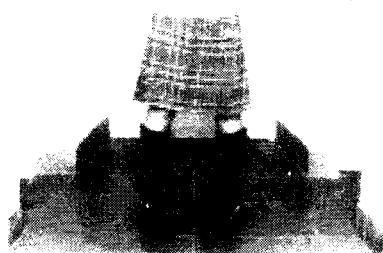
또한 복식에 있어서 해체주의적 경향을 박현신⁵¹⁾은 1970년대 이후 시대정신에 따른 새로운 현상을 옷속에 함축된 내적 의미들의 갈등 등을 해체, 전복시켜 웃이 결코 '입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작용을 하는 다중 코드이다라고 하였다.

1990년대 후반의 서양복식에서는 이러한 해체주의적 철학을 근거로 독창적인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법과 연출로 새로운 의복의 구성요소들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실루엣을 창조해내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서처럼 기존의 착

장 방법을 탈피하여 해체됨으로써 새롭게 구축된 실루엣의 Deformation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세기말적 서양복식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Jean Paul Gaultier의 작품(그림 II-2)에서는 남성 복식에서 표출된 실루엣의 Deformation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가치나 체계를 거부함으로써 또 다른 표현을 연출해 내는 새로운 시도들이 Deformation의 범주에 포함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Gaultier의 작품의 경우는 재킷과 바지라는 투피스 형식의 남성복 기본 구성의 사고에서의 일탈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그는 여성복으로만 수용될 수 있는 스커트를 남성복에 도입함으로써 기본적인 기능적 역할이 부정된 창작 뿐 아니라 의복을 해체, 분열시켜서 전혀 다른 독특한 이미지의 실루엣을 표출해 내었다.



(그림 II-2) Jean Paul Gaultier, 1994

출처 : Farid Chenoune, *Fashion Memoir*,
Thames & Hudson, 1996

이렇게 실루엣의 Deformation은 전통적인 복식 개념을 해체시킴으로써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비대칭적인 구성방법이나 인체의 기능적 개념을 탈피한 구성방법 등에서 왜곡된 실루엣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Shimura의 작품(그림 II-3)이 경우는 바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된 비대칭적인 구성방법으로 새로운 실루엣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상이 인체에 입혀져 폐적함과 안락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

는 구조물이라는 관념이 거부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나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패션 작품의 탈구성적 경향은 실루엣을 왜곡시킴으로써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와 함께 새로운 감각을 이끌어 주는 디자이너의 내면세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기말의 정신적 측면이 실루엣의 Deformation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그림 II-3) Shimura '95 Collections(III)

Christian Dior의 작품(그림 II-4)의 경우를 보면 조각적(彫刻的)인 구성에서 실루엣의 Deformation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웅장하고 거대한 네크라인과 칼라, 인체기능이 왜곡된 소매 형태 구성 등에서 갤러리에 서있는 커다란 조형물과 같은 느낌을 주

(그림 II-4) Christian Dior, *Donna Collzioni '99 S/S*

고 있는데 실루엣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그의 작품세계의 아방가르드한 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ssey Miyake의 작품(그림 II-5)은 'Flying Saucer'라는 제목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마치 설치(installation)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아주 정교한 플리츠를 타이트하게 꼬아서 창안해 낸 그의 주름 이미지는 고도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Flying Saucer'라는 이미지를 의상의 실루엣으로 표출해 냄으로써 전통적인 구성방법을 벗어난 Miyake는 파괴와 해체를 통한 구성방법으로 의상의 실루엣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러한 의상의 파괴적 해체를 김주영·양숙희⁵²⁾는 사회적 저항을 표현하는 것이며 의상을 파괴하고 찢음으로써 전통적 예절과 실용성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그림 II-5) Issey Miyake, 1994, S/S

출처 : Laurence Benaim, *Fashion Memoir*,
Thames & Hudson, 1997

이처럼 세기말 서양복식에는 실루엣의 Deformation 범주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본래의 기능적 측면과 구성형식을 거부함으로써 새롭게 창조되는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작품(그림 II-6)의 경우에서도 언제나 작품을 통해서 인습타파적인 도전을 하는 그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범스터(bumster)⁵³⁾ 역시 실루엣의 Deformation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착장의 왜곡으로 파괴적인 실루엣

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McQueen은 '거의 범죄에 가까우리만치 절충주의자'이다⁵⁴⁾고 비유되고 있듯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악취미(bad taste)가 묘사되고 있으며 그림 II-6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악취미가 의복에서의 유희성으로 표출되어 실루엣의 Deformation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II-6) Alexander McQueen, *The Fashion Book*, 1998

즉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한 유희성의 표현은 현대 패션의 중요한 요인으로 유희성은 웃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보다 큰 기능인 인간과 사회의 잘못되고 획일화된 부분들을 통찰비판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교정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기존질서의 위선이나 횡포에 대해 공격하며 그것을 제거하며 창조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⁵⁵⁾

이와 같이 인체와 복식과의 기준의 조화개념인 전혀 의식되지 않는 실루엣의 Deformation에는 세기말적인 불안감에 대한 시대적 현상의 내적 조형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세기말적 분위기에서 새롭고 파격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중심리가 Deformation을 통하여 표현의 한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디테일의 Deformation

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은 해체주의적

디자인 사고방법을 가져옴으로써 복식을 통해서 노출이나 파괴, 빈곤, 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은 복식의 디테일에 있어서도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장식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위치전환해 있다든가, 기능성을 가진 디테일이 그 용도가 과장되거나 요소가 지나치게 반복됨으로써 용도의 변용을 초래함으로써 Deform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식에서의 디테일은 기능적인 용도와 장식적인 용도를 가진 것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가지 포켓의 형태나 칼라, 패드 등의 기능성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디테일과 프릴이나 러플, 리본 등등의 장식성이 우선적인 디테일들이다. 이러한 디테일은 세기말의 시대적 분위기의 복식에서 창작의 주요한 모티브로써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용도의 왜곡은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로까지 Deformation의 범주로 나타났다.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그림III-1)의 경우는 포켓의 중첩과 과장되고 인위적인 형태의 왜곡으로 인해 기본적인 기능성에서 탈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의 Deformation의 범주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Castelbajac의 작품은 패러디 기법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해내고 있다. 패러디는 모방하는 사고나 구절의 전환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산출하는 양식이다.⁵⁶⁾



(그림III-1) Jean-Charles De Castelbajac '95 Collections(II)

패러디는 패러디스트가 문학이나 예술에서 한 작가나 한 부류의 작가들의 형식적, 문체적 특징과 내용적 사고를 다소 밀접하게 모방, 변형, 과장 등을 통해 전환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주제에 적용시켜 풍자, 조롱, 희극적 효과 등을 연출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⁵⁷⁾

패러디화에 있어 디자이너가 사용한 기법은 원작에 밀접한 모방, 변형, 과장, 왜곡, 첨가, 삭제, 축소, 단순화, 생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새로움, 의외성, 장난, 위트, 조롱, 풍자, 아이러니, 패러독스 등의 효과가 유도되었다.

Gaetanonavarra의 작품(그림III-2)의 경우에서도 소매끝단의 지나친 큰 프릴과 프린지의 반복, 그리고 과장된 기능성에서 오는 파괴된 왜곡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다. 즉 대담하고 육중한 느낌의 소매의 프릴은 기능적 용도라기 보다는 불균형한 이미지를 유도함으로써 그 용도가 전환되어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프릴 사이즈의 지나친 왜곡과 칼라부분과 스커트에 반복된 프린지는 모두 전체적인 의상과의 비례나 조화와는 이질감이 큰 디자인으로 특히 해체적 관점의 주관적인 미의식이 디테일의 왜곡을 통한 Deformation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III-2) Gaetanonavarra, '95 Collections(III)

또한 기능성이 배제된 불균형은 추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기말 복식에서 표현되는 일반적인 왜곡이며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으로 많은 조형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디테일의 Deformation 역시 추의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

며 그것은 세기말의 포스트모던한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왜곡의 풍자적 성격은 Jean Paul Gaultier 작품(그림 III-3)에서도 역시 포켓의 기능성과 장식성이 왜곡된 디테일의 Deformation의 범주에 함축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념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복식의 구성요소가 재구성되어 표현되는 주관적인 복식미에서 충격과 의외성을 수반함으로써 패러디 양식에 의한 디테일의 Deform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출을 통한 관능성과 비정숙성 역시 추개념으로써 기존의 질서로 부터 탈피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의 반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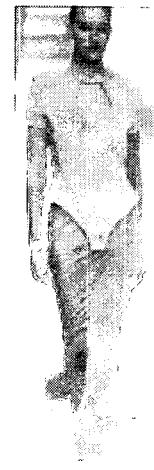


(그림 III-3) Jean Paul Gaultier, '95 Collections(II)

Ozbek의 작품(그림 III-4)의 경우는 어깨 패드의 본래의 기능성과는 동떨어진 위치전환한 형태에서 디테일의 Deformation을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복식에 인체에 착용되어 발현되는 착장미의 조화 개념이 파괴되고 전통적인 기능적 측면이 거부되어 나타나는 Deform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Ozbek의 작품에서는 패러디 특성의 반영 뿐만이 아니고 페티시적 요소와 키치적인 요소 등이 함축된 디테일의 Deform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키치는 부조화, 부적절성, 무질서, 미완성적인 외적 형식을 빌어 통속성, 상투성, 풍자성, 관능성 등의 속성을 가지며 복식에서의 키치는 하위문화 집단의 반항적이고 가치전복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키치적인 사물은 넘쳐흐르는 장식으로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데 이것은 부조화의 조화라는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⁸⁾



(그림 III-4) Ozbek, '95 Collections(II)

Vivienne Westwood의 작품(그림 III-5)의 경우에서는 레이스와 프린지 등의 과잉사용과 부적절하고 부조화된 반복에서 키치적 특성이 강조되는 디테일의 Deformation의 범주에 속하는 디자인이다. 즉 반복되어 장식된 디테일은 정화된 미적 감각을 부여하기보다는 통속적인 키치패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중성과 상업성을 배경으로 대두된 키치는 소비사회의 문화현상으로써 세기말 서양복식에 있어서는



(그림 III-5) Vivienne Westwood, 1996 A/W
출처 :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Thames & Hudson, 1998

일정한 형태나 종래의 미적 규범을 파괴하고 일상성으로 무시되었던 추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의 반복된 디테일의 과잉장식은 하위문화에 바탕을 둔 신선한 충격적 흥미유발의 요소로써 역시 포스트모던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테일의 Deformation이며, 그녀의 독창적인 작품들은 20세기 후반의 복식에 주요한 테마들을 결정하였다.^{59)~60)}

John Galliano의 작품(그림III-6)의 경우에서는 흰색과 검정색 레이스의 과잉장식에서 느낄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값싼 이미지에서 키치적 특성을 볼



(그림III-6) John Galliano, Modain, 1994

수 있고 또한 디테일 자체의 이미지에서 페티시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디테일의 Deformation 표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페티시는 16세기의 14인치 까지 허리를 조이는데 이용했던 극단적으로 조이는 끈에서 시작되어 모든 여성적인 구속들이 가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19세기 말에 그 절정에 달했다.⁶¹⁾

또한 Steele⁶²⁾은 페티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성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와는 근본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복식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하며 페티시적 스타일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레이스 소재 이미지와 더불어 속옷 스타일의 John Galliano의 작품은 페티시적 상징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통해서 키치는 항상 표적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과녁을 겨누며 순수함을 표현할 때도 비순수함으로 바꿔 표현함으로써 크기의 불균형이나 차원의 위화감과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다는 키치적 특성⁶³⁾을 함축함으로써 디테일의 Deformation으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디테일의 과잉장식이나 부적절함, 본래 용도에서의 탈피나 해체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복식의 기본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내적 세계를 함축시키며 주관적인 복식미를 연출하는 것에서 디테일의 Deformation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표 1은 1990년대 후반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의 유형을 요약정리하여 보았다.

(표 1) 1990년대 후반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의 유형

유형	조형적 특성	조형기법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를 인간으로 모습으로부터 해체·왜곡시켜 서 복식의 분위기를 재창조함 *동물이나 곤충 등의 충격적인 생물의 요소로 인체 이미지를 해체·왜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괴적인 상처 *페티시즘 표현 *전위적이 추상적인 메이크업
실루엣의 De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와 복식과의 조화라는 전통적이 관념을 탈피한 왜곡된 실루엣이나 풍자적인 모습으로까지 실루엣을 왜곡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러디적 표현 *유희적 표현 *파괴적인 해체
디테일의 De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잉장식이나 부적절함, 반복, 인위적인 형태의 과장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서 탈피한 왜곡으로 불균형하고 풍자적으로 표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러디적 표현 *페티시적 표현 *키치적 표현

IV. 맷음말

20세기 말의 인간생활 및 사고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과학기술은 정보, 통신, 컴퓨터 관계의 분야로써 이를 분야는 후기산업사회를 태동시켰다. 따라서 합리성에 바탕을 둔 모든 문화현상이나 예술은 더 이상 적합하지가 않게 되었으며 새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양식인 포스트모던 문화시대가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세기말적 현상에서 조형예술은 재현적인 경향에서 비재현적인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인간의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새로운 방향으로의 표현형식을 탐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예술에 표출되었던 Deformation을 세기말의 시대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 등을 배경으로 한 서양 복식에 있어서도 고찰해 볼 수 있는 조형언어로써 제시하여 연구하였다.

Deformation은 대상을 시각적 현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의도적, 무의식적, 주관적 조형적 시각에서 형상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규칙적인 조화에서 벗어나 주관적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Deformation은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의지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된 세기말 서양 복식에서 그 범주를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 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의 범주를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 실루엣의 Deformation, 디테일의 Deformation 유형으로 나누어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복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체 이미지는 당시의 기계문명의 발전과 문화적 충격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그럼으로써 복식에 내재된 창조적인 감각은 파괴적이고 왜곡된 인체 이미지의 Deformation으로 디자이너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작의 세계가 한층 강조되어 표출된다.

둘째 서양복식에 있어서 실루엣의 다양화는 사회현상의 메세지이다. 세기말의 포스트모던한 많은

특징들이 복식의 실루엣을 기존관념으로부터 해체시켰으며 그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작품을 통해서 반미학 개념의 하나로 새로운 실루엣을 재창조해내는 실루엣의 Deformation을 수반하였다.

셋째 복식에 있어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가진 디테일은 세기말 서양 복식에서는 과잉장식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반복과 형태의 왜곡 등으로 과거의 전통적 역할을 탈피하여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세기말적인 포스트모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키치적, 페티시적, 패러디적 표현으로 디테일의 역할 전환은 복식에 있어서 디테일의 Deformation으로 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와 인간성 상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라는 사회개념의 대두는 조형예술을 논함에 있어 다원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해 더욱 빈번하게 표출되는 세기말의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산업주의나 중산계층의 삶의 방법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했던 고급 예술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파괴됨으로써 하위문화의 속성들이 조형 예술분야에 있어서 인간 정신 세계의 자유로운 표출로써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세기말적 문화의 해체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의 표현기법들 중 기성화된 규범을 거부함으로써 나타난 표현 방법 중 하나인 Deformation은 예술가의 작품세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세기말 서양 복식에서도 역시 그 Deformation의 유형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복식에 적용될 수 있는 조형언어로써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미래복식에서도 포스트모던한 예술분야의 조형언어들이 새로운 복식의 내면세계를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Deformation이 지니는 고유한 언어 상의 의미와 개념이 복식 현상과의 관점에서 고찰됨으로써 좀 더 깊이있게 접근되지 못함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게되었다.

참고문헌 및 미주

-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RFER SOULIES SKINHEADS & SKATERS, The Overlook Press, 1996
- Anne Hollander, sex and suits, KODANSHA INTERNATIONAL, 1995
- Catherine McDermott, Vivienne Westwood, CARLTON, 1999
- Christopher Ba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1995
- Phaidon Press Limited, THE FASHION BOOK, 1998
- Valerie Steele, Fet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김윤수 · 방대원 역, 마이어사피로, 현대미술사론, 까치, 1990
- 김유리 역, 한스로크마커,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IVP, 1993
- 김원방 · 잔혹극 속의 현대 미술, 예경, 1998
- 김상구 · 윤여복 역, 패러디이론, 문예출판사, 1992
- 미술사전1, 도서출판 송례문, 1991
- 시사엘리트 영한사전, 시사영어사, 1996
- 양건열 편역, 예술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미진사, 1990
- 엄광현 역, 아브라함 몰트,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 오병남 · 최연희역,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8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 이경희 옮김, A 노이마이어,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 열화당, 1992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93
- 정진국 역, 존 A 위커,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1
- 최병기 · 유인수 편역, 현대미술구조론(1) 1990
- 홍가이, 현대미술문화비평, 미진사, 1989
- 김주영 · 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8호 1997
- 김주애 · 허정란,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4호, 1998
-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대한 연구(), 복식 37호, 1998.3
- _____.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대한 연구(), 복식38호, 1998.5
- 고현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Parady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박주현, 공상 과학 영화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박현선,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경

- 향에 관한 연구, 복식 38호, 1998.5
- 안선경 · 양숙희,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醜) 개념, 한국의류학회지, Vol.19 No.2 1995
- 유선리, 歪曲시킨 人體描寫의 表現性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사논문, 1995
- 윤순향,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대 석사논문, 1985
- 이윤우, 현대조각에 있어서 인체의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94
- 이은영, 복식에 표현된 드레이퍼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1호, 1999
- 이은영,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6권 3호, 1998.8
- 장미숙 · 양숙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3호
- 전우진, 인체조각의 추 개념 연구, 원대 석사논문, 1996
- 정진국, 사진 이미지와 키치의 그늘, 예술과 비평, 1990 제20호 여름
-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된 유화성, 복식, 22호, 1994

- 1) 양건열 편역, 예술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미진사, 1990, pp.122-3
- 2) 존 A 위커, 전진국 역,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1991, pp.87-8
- 3) 홍가이, 현대미술 · 문화비평, 미진사, 1989, p39
- 4) 박주현, 공상 과학 영화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9, p.34
- 5)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대한 연구(I), 복식 37호, 1998.3, p.106
- 6) 오병남 · 최연희역,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8, p.106
- 7) 시사엘리트 영한사전, 시사영어사, 1996
- 8) 표현주의(Expressionism): 표현주의자들은 그림이란 색과 선들이 덮인 평면이되 자연주의식으로 실재를 맹목적으로 베끼는 차원을 넘어선 인간자신의 창조물임을 알고 있었다.
- 9) 야수주의(Fauvism): 야수주의자들의 작업은 인가성에 도달하는 동시에 19세기가 떨구어 놓은 전통의 고질적 폐단들을 극복하려는 야수적 울부짖음, 필사적 몸부림이었다.
- 10)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p.89
- 11) 미술사전1, 도서출판 송례문, 1991, p.138
- 12) 미래주의(Futurism): 미래주의자들은 과거와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움과 젊은, 기계, 힘, 속도를 찬양하였던 양식이었다.
- 13) 입체주의(Cubism): 수학적이다 못해 기하학적이기까지 한 형태로 인상지워지는 것과 동시에 기묘한 왜곡의 요소가 혼재했던 양식이었다.

- 14) 김원방, 잔혹극 속의 현대 미술, 예경, 1998, pp.331-2
- 15) Morphing: 우발적 혹은 요행에 의한 변환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이미지 변형으로 나타난다. 컴퓨터 기술로는 이것을 Morphing이라고 한다.
- 16) 김원방, op. cit., p.187
- 17) 세계미술용어사전, op. cit., p.187
- 18) 이윤우, 현대조각에 있어서 인체의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94, p.3
- 19) 최병기·유인수 편역, 현대미술구조론(Ⅰ), 1990, p.264
- 20) 홍가이, op. cit., p.19
- 21) 최병기·유인수 편역, op. cit., p.264
- 22) 초현실주의(Surrealism):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예술속에서 취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은 바로 두려움, 고통, 절망, 부조리 등이었으며 혁명적이고 파괴적인 양식이었다.
- 23) 미술사전1. 도서출판 승례문, op. cit., p.138
- 24) 마이어샤피로, 김윤수·방대원 역, 현대미술사론, 까치, 1990, p.153
- 2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神으로 여러 모습으로 바뀐다는 바다의 신
- 26) A 노이마이어, 이경희 옮김, 현대미술의 의미를 찾아서, 열화당, 1992, pp.121-122
- 27) 마이어샤피로, 김윤수·방대원 역, op. cit., p.153
- 28) 이은영,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6권 3호, 1998, p.91
- 29) 전우진, 인체조각의 추 개념 연구, 원대석사논문, 1996, p.8
- 30) 안선경·양숙희, 현대복식에 표현된 추(魏)개념, 한국의류학회지, Vol.19 No.2 1995, p.175 p.183
- 31) 정진국, 사진 이미지와 키치의 그늘, 예술과 비평, 1990 제 20호 여름 pp.27-45
- 32) 김주애·허정란, 복식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4호, 1998, p.224
- 33) 유선리, 歪曲시킨 人體描寫의 表現性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사학위, 1995, p.17
- 34) 오병남·최연희 역 op. cit., p.106
- 35) 월간미술, 1999, 6, p.115
- 36) 이은영, 현대예술과 패션 트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op. cit., p.465
- 37) 월간미술, 1998, 4, p.34
- 38) 이은영, 복식에 표현된 드레이퍼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1호, 1999, p.55
- 39) Phaidon Press Limited, THE FASHION BOOK, 1998, p.296
- 40) 킴메르인(Cimmerian): 킴메르족은 세계의 서쪽 끝 안개와 암흑의 나라에 산다고 Homer는 읊고 있다.
- 41) 장미숙·양숙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3호, p.423
- 42) Phaidon Press Limited, THE FASHION BOOK, op. cit., 396
- 43) 테크노 스타일(technostyle): 테크노 스타일은 90년대 초 베를린과 도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하위문화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첨단기술과 그것이 지닌 미래적 이미지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 44) 사이버펑크(cyberpunk): 펑크스타일이 실재의 현실에서 공상과학과 만난 것으로 미래적인 환상과 techo-fetishism이 합해진 것이다. 스스로 사이버펑크라 부르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technology의 환상을 의미하기 위해 검정가죽, 고무, PVC, 케이블이나 회로판의 산업적 장식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Amy de la Haye and Cathie Dingwall, SURFER SOULIES SKINHEADS & SKATERS, THE Overlook, 1996, pp.10-1
- 45) 한스로크마커, 김유리 역,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IVP, p.248
- 46) 윤순향, Karl Rosenkranz에 있어서의 [추의 미학] 연구, 홍대석사논문, 1985, pp.37-40
- 47) 박현신, 카오스·프랙탈적 사고에 기초한 의상의 해체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38호, 1998, 5, p.185
- 48)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Ⅱ), 복식38호, 1998, 5, p.372, 387
- 49)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op. cit., pp.470-1
- 50)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93, p.373
- 51) 박현신, op. cit., p.185
- 52) 김주영·양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8호 1997, pp.1268-9
- 53) 여성들의 hipster와 같은 의미의 의상으로 남자들의 패션에서 볼 수 있으며 hip 중간에 걸쳐입는다.
- 54) Phaidon Press Limited, THE FASHION BOOK, op. cit., p.303
- 55)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된 유희성, 복식, 22호, 1994, 5, p.83
- 56)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아론, 문예출판사, 1992, p.55
- 57) 고현진, 현대 패션에 나타난 Parady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p.8
- 58) 아브라함 몰트, 엄광현 역,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p.27
- 59) Catherine McDermott, Vivienne Westwood, CARLTON, 1999, p.18
- 60) Christopher Ba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1995, pp.233-4
- 61) Anne Hollander, sex and suits, KODANSHA INTERNATIONAL, 1995, p.141
- 62) Valerie Steele, Fetish,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33
- 63) 아르라함 몰트, 엄광현 역, op. cit., p.83